

최근 5년간 “허혈성 심질환” 진료경향 분석



김지우 주임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부

1. 들어가며

허혈성 심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심근에 영양 및 산소 결핍이 생겨 심장기능 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을 일컫으며, ICD-10 코드에서 I20~I25 까지를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있다¹⁾.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증의 1,000명당 발생률은 2011년 1.36에서 2015년 1.73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²⁾. 나아가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에 따른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2011년 52.5명에서 2015년 55.6명으로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뇌혈관질환과 허혈성 심질환으로 대표되는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혈성 심질환은 높은 사망률과 질병부담으로 인하여 주요한 건강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황 파악을 통한 적절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최근 5년(2012~2016)간의 허혈성 심질환의 진료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ur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7330&cid=51007&categoryId=51007>

2)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2011&2015)

3) 통계청(2016). 「2014년 사망원인통계」

2. 분석자료 및 방법

분석 자료는 건강보험청구 심사결정 자료(2012년 1월~2017년 5월) 중 진료시점 기준으로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허혈성 심질환의 코드별 정의는 다음의 (표 1)과 같으며, 환자들의 주상병에 해당 코드가 있는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연도별 허혈성 심질환의 분류별 진료인원 및 진료비를 파악하였으며, 연령별·성별 진료인원 파악을 통하여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였다. 그 외에도 월별, 의료이용형태별(입원/외래)로 세분화 하여 알아봄으로써 진료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자료 산출 기준

분석자료	심사결정일	2012년 1월 ~ 2017년 5월
	진료개시일	2012년 1월 ~ 2016년 12월
주상병 (3단 코드)	I20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속발성 심근경색증
	I23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성 심질환
	I25	만성 허혈성 심질환

3. 분석결과

가. 허혈성 심질환 분류에 따른 진료 경향

허혈성 심질환(ICD-10: I20~I25)의 분류별 일반 현황은 (표 2)와 같다. 허혈성 심질환 분류중 협심증(I20)이 68.4%, 만성 허혈성 심질환(I25)이 21.0%, 급성심근경색증(I21)이 9.6%, 기타 급성 허혈성 심질환(I24)이 0.8%, 속발성 심근경색증(I22)가 0.2%,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I23)이 0.1%의 순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22와 I24를 제외하고는 2012년과 비교하여 2016년에 진료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허혈성 심질환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급성심근경색증이 약 276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총 진료비의 경우에는 협심증이 약 4천4백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 연도별 허혈성 심질환 진료경향

(단위: 명, 원,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I20	진료인원	590,608	597,240	621,035	629,904	665,852
	1인당 진료비	599,288	587,754	598,473	606,136	665,138
	총 진료비	353,945	351,030	371,673	381,807	442,884
I21	진료인원	75,949	80,891	87,181	93,794	98,631
	1인당 진료비	2,477,096	2,520,324	2,510,521	2,533,305	2,765,131
	총 진료비	188,133	203,872	218,870	237,609	272,728
I22	진료인원	1,782	1,674	1,481	1,258	1,271
	1인당 진료비	735,786	715,195	655,975	695,075	737,366
	총 진료비	1,311	1,197	971	874	937
I23	진료인원	577	584	524	525	592
	1인당 진료비	1,568,410	1,290,401	1,597,281	2,807,843	1,749,563
	총 진료비	905	754	837	1,474	1,036
I24	진료인원	7,907	7,533	6,986	6,308	6,128
	1인당 진료비	512,586	604,773	556,677	667,016	682,299
	총 진료비	4,053	4,556	3,889	4,208	4,181
I25	진료인원	190,717	187,933	190,460	189,448	192,974
	1인당 진료비	657,135	609,730	593,273	650,613	691,691
	총 진료비	125,327	114,588	112,995	123,257	133,478

허혈성 심질환자의 1인당 진료비 및 진료인원의 추이는 (그림 1)과 같다. 1인당 진료비의 경우 2015년을 제외하고는 2012년부터 2016년 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진료인원은 꾸준한 증가 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영역별
 진료경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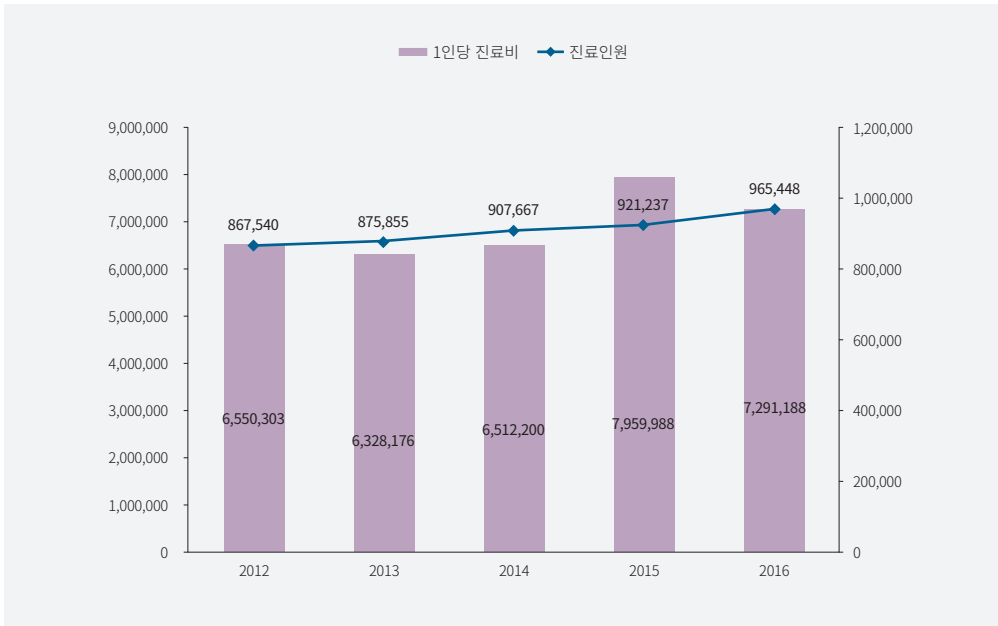


그림 1. 허혈성 심질환 환자의 1인당 진료비 및 진료인원 추이(2012~2016년)

나. 허혈성 심질환의 연령별 · 성별 진료인원

허혈성 심질환의 환자수를 연령별 · 성별로 살펴 본 결과, 연령별 · 성별 허혈성 심질환의 진료경향은 (표 3)과 같으며, 2016년 환자를 기준으로 성별에 따른 연령별 환자의 차이는 (그림 2)와 같다. 그 결과 남녀 모두 50세에서 80세 사이의 연령군에 환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남성은 60~69세 구간에서 여성은 70~79세 구간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80세 이상의 환자비율이 높았다. 나아가 70세 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성 환자의 비율이 높았으나, 70세 이후의 연령군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연령군 증가율을 확인해 본 결과, 0~19세 연령구간에서 환자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80세 이상 연령구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성은 50~59세에 연령군 증가율이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 연령별 · 성별 허혈성 심질환 진료경향

(단위: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남성	0-19	1,287	1,075	996	869	856	-7.8
	20-29	3,102	2,739	2,685	2,382	2,441	-4.7
	30-39	11,652	10,992	10,706	10,000	10,183	-2.7
	40-49	47,258	45,643	46,114	45,059	46,013	-0.5
	50-59	120,683	122,452	127,356	128,430	132,159	1.8
	60-69	142,467	144,263	153,268	162,541	176,158	4.3
	70-79	108,878	116,444	124,071	130,581	137,999	4.9
	80세 이상	28,187	31,352	35,803	40,469	45,564	10.1
여성	0-19	732	666	647	497	465	-8.7
	20-29	2,003	1,826	1,697	1,381	1,441	-6.4
	30-39	4,937	4,524	4,273	3,701	3,706	-5.6
	40-49	19,699	17,939	16,905	15,266	14,976	-5.3
	50-59	66,711	63,330	62,638	58,975	58,366	-2.6
	60-69	103,094	98,813	99,592	99,957	105,312	0.4
	70-79	122,368	125,450	129,546	130,130	131,698	1.5
	80세 이상	46,103	50,513	56,361	61,825	68,421	8.2

진료경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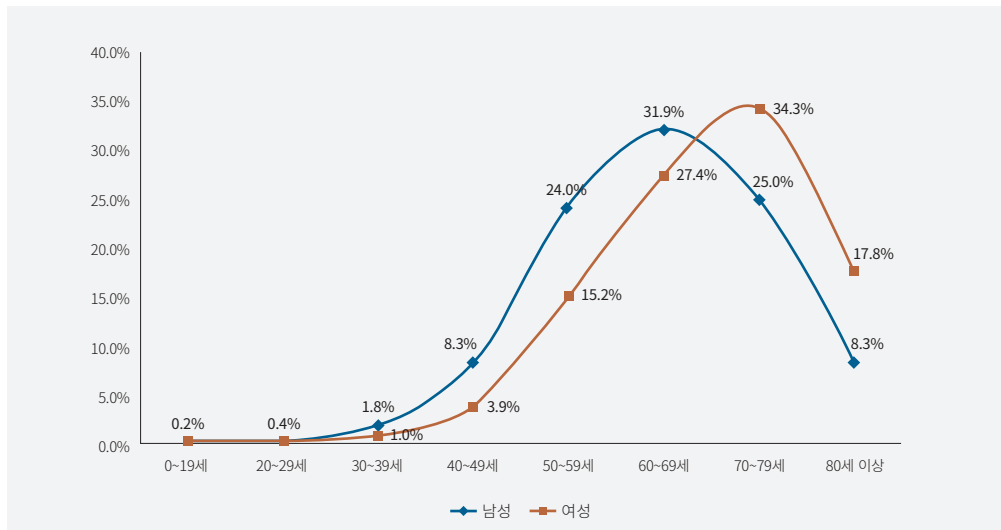


그림 2. 연령별 · 성별 허혈성 심질환 환자 비율(2016년)

다. 허혈성 심질환 환자의 입원/외래 이용 경향

허혈성 심질환 환자의 진료경향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평균적으로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진료비용의 87%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원 및 외래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입원 진료비의 평균 증가율은 외래 진료비 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을 기준으로 약 6 배 정도 외래 환자의 규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입원에서 환자당 소요되는 비용이 약 7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급성심근경색증 관련 입원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 되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입원의 경우 (그림 3), 외래는 (그림 4)를 통하여 허혈성 심질환 환자의 입원/외래 이용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4. 연도별 허혈성 심질환 환자의 입원/외래 이용경향

(단위: 명, 원,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입원	진료인원	140,711	136,317	141,106	138,362	155,638
	1인당 진료비	4,164,356	4,284,072	4,333,548	4,676,958	4,790,666
	총 진료비	585,971	583,992	611,490	647,113	745,610
외래	진료인원	766,433	780,305	811,691	829,696	865,134
	1인당 진료비	114,430	117,909	120,421	123,077	126,725
	총 진료비	87,703	92,005	97,745	102,116	109,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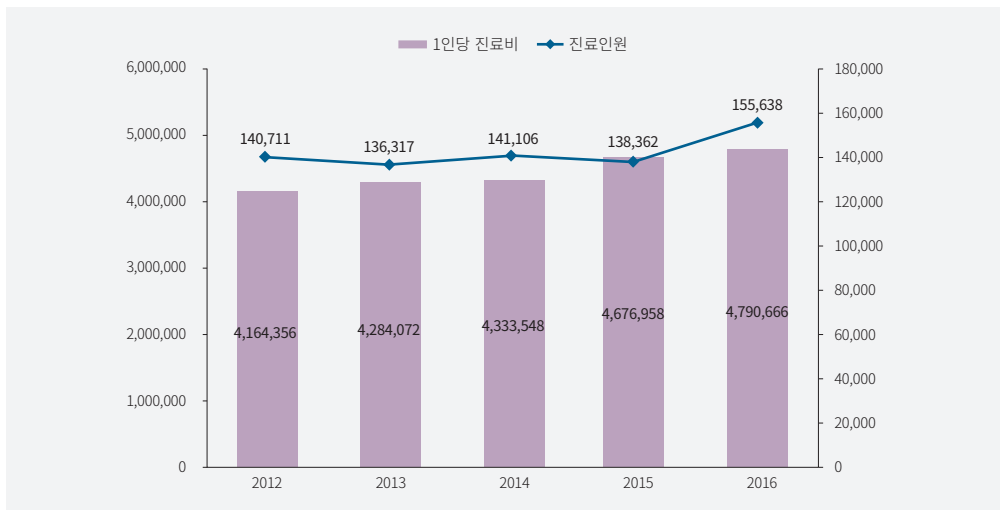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허혈성 심질환 환자의 입원 진료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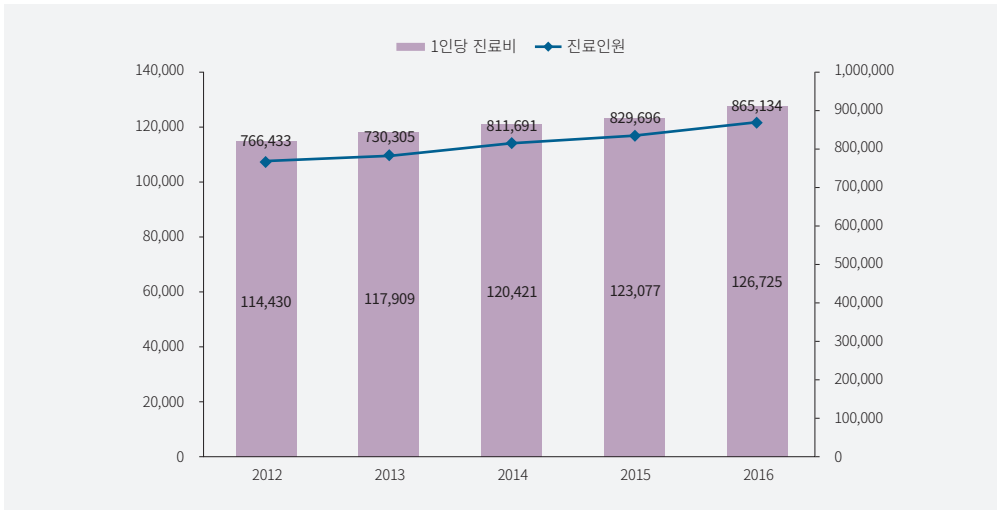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허혈성 심질환 환자의 외래 진료경향

라. 월별 진료인원

허혈성 심질환의 계절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월별로 진료인원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계절별로 연도가 거듭할수록 환자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월별 진료인원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월별 연평균 증가율을 확인해 본 결과 3월, 12월, 9월의 순으로 진료인원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월의 진료인원이 가장 낮은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월별 진료인원

(단위: 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월	231,417	251,671	243,941	252,776	251,998
2월	238,697	224,086	238,679	228,275	249,274
3월	239,373	238,096	249,793	266,368	278,714
4월	234,409	247,206	256,602	260,407	252,984
5월	243,178	248,793	243,830	235,511	262,019
6월	233,600	227,040	240,876	235,117	258,684
7월	239,644	253,438	260,997	266,188	254,043
8월	236,518	237,466	241,553	246,881	261,492
9월	231,089	232,446	245,039	242,783	259,024
10월	240,566	249,998	257,372	263,555	260,771
11월	238,628	237,854	238,906	252,409	265,118
12월	231,335	253,267	264,984	266,748	267,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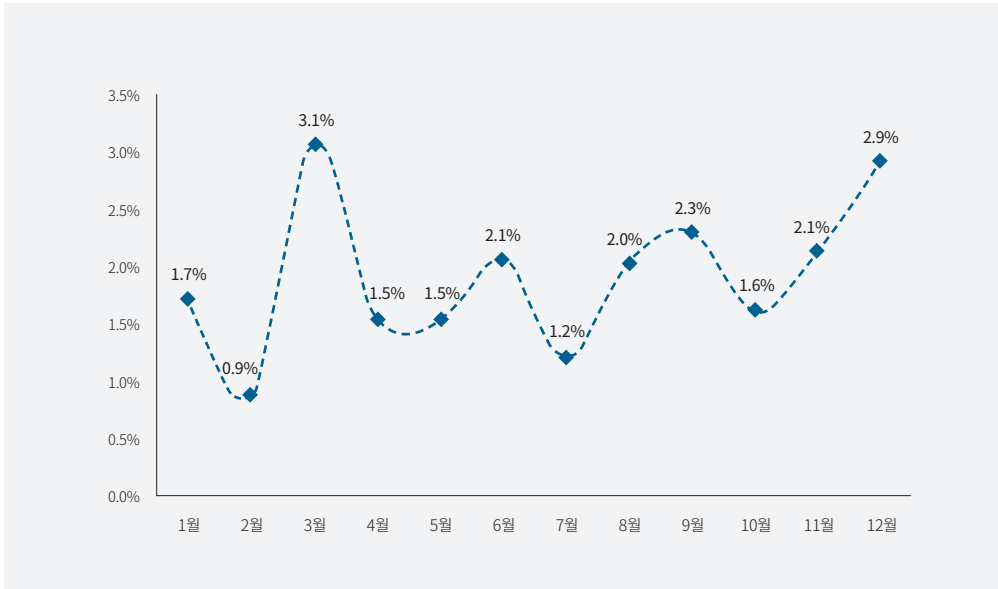


그림 5. 월별 허혈성 심질환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2012~2016년)

4. 나가며

지금까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허혈성 심질환’ 진료경향을 살펴보았는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혈성 심질환(ICD-10: I20~I25)의 분류별 비율은 검토기간(2012~2016년)동안 큰 변화가 없었으며, 협심증, 만성 허혈성 심질환,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증에 환자의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았으며, 협심증 환자의 총 진료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진료인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70세 이전까지는 남자환자의 비율이 높았지만 그 이후 연령부터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원과 외래의 이용현황의 경우에는 입원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의 87%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를 이용하는 진료인원이 입원에 비해 훨씬 많지만 소요 비용은 입원을 이용한 경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허혈성 심질환의 계절성 확인을 위해 월별로 진료인원을 비교해 본 결과 3월(3.1%), 12월(2.9%), 9월(2.3%)의 순으로 환자의 증가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매우 큰 질환이며,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해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수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분석을 통하여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수명을 연장을 위하여

현황 파악을 통한 적절한 정책적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해 본 분석결과가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해본다. X

참고문헌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2011;보건복지부:2012.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2015;보건복지부:2016.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Available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7330
&cid=51007&categoryId=51007](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7330&cid=51007&categoryId=51007)
통계청. 2014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2015.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
d=D#SubCont](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D#SubCont)